

亞 문화전당 '문화광장' 18일 첫 공개

'문화의 달' 광주 기념행사...8일까지 문화전당 투어 참가자도 모집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이하 문화전당) 개관을 1년 앞두고 문화 전당의 면모를 살펴볼 수 있는 공간이 처음으로 개방된다.

문화체육관광부와 광주시는 오는 18일 열리는 2014문화의 달 개막식 '빛으로 소통하라'를 문화전당 내 아시아문화광장에서 갖는다. <관련기사 16면> 지난 9월 열린 광주월드뮤직페스티벌 당시 문화장조원 옥상 잔디광장이 개방

된 적은 있지만 문화전당의 규모 전체를 가능할 수 있는 공간이 광주 시민에게 선보이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아시아문화정보원, 어린이문화원 등 문화 전당 내 다양한 시설과 접하고 있는 아시아문화광장은 6123㎡ 규모의 대형 광장으로 각종 문화 행사가 열리는 공간이다.

문화광장에 특설무대를 설치하고 진행되는 이날 행사는 미디어 아트를 비롯해

광주, 요코하마, 취안저우 등 각국 공연단의 무대가 이어지며 미디어 아트 등은 문화전당 홍보물로도 활용될 예정이다.

행사 기간 중에는 2시간 동안 문화전당 곳곳을 둘러볼 수 있는 '아시아문화 투어'도 진행한다. 광주 지역 초등학생(100명), 학부모(100명), 학생 및 일반인(200명)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며 오는 8일까지 참가자를 받는다.

9월말 현재 98% 공정률을 보이고 있

는 문화전당은 오는 10월말까지 아시아 예술극장, 문화장조원, 어린이문화원 등 신축 건물 4개동이 완공될 예정이며 민주평화교류원으로 재단장되는 옛 전남도청 등은 2015년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2014문화의 달 행사 추진위 정동채 위원장은 "이번 문화의 달 행사가 내년 개관하는 국립아시아문화 전당에 대한 국내외 홍보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문의 062-457-1992~5.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행정구역 초월 관광벨트 조성 등 영산강 통해 광주·전남 상생해야”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오늘 공동 학술 심포지엄

통합을 앞두고 있는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하 광주·전남발전연구원)이 광주·전남의 모태이자 상생의 원천인 영산강을 주제로 1일 오후 나주 빛가람 혁신도시 한국콘텐츠진흥원 빛가람에서 학술심포지엄을 개최한다.

“광주·전남 상생발전 전략”이라는 주제로 치러지는 이번 심포지엄에서는 영산강 유역공동체 조성에 대한 기초발표와 영산강유역 문화관광벨트 조성, 영산강 보전 및 지속가능한 활용에 대한 주제 발표에 이어 민·관·학 등 각계 전문가들이 다각도의 해법을 논의하게 된다.

이번 심포지엄은 2004년 개소 이후 영산강, 섬진강, 탐진강 등 3대강 유역의 공동발전 방안 등에 연구하고 있는 전남발전연구원 부설 남도가람연구소가 개소 1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같은 장소에서 운영한 광주시장과 이낙연 전남지사가 참석한 가운데 광주·전남 상생발전위원회 출범식이 열리고 의미를 더할 전망이다.

이건철 전남발전연구원장은 이날 행사에 앞서 “영산강 유역공동체 조성을 통한 광주·전남 상생발전 구상” 발제문을 통해 “국내외적으로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적 ‘협력’이 최고 경쟁수단으로 등장

하는 추세에 맞춰 생활권, 경제권, 역사성이 중첩된 광주와 전남이 상호협력력을 통한 공동번영의 기본틀을 마련할 시점”이라며 “행정구역을 초월한 광역협력력 패러다임에 부응하기 위해 영산강 상류의 광추권과 하류의 목포권이 상호보완을 통해 상생발전을 촉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원장은 상생발전 전략으로 ▲혁신도시 이전기관과 서남권의 에너지원을 연계한 신재생에너지산업의 메카 육성 ▲광주근교권에 집적된 바이오산업, 대학, 연구기관 등을 연계한 ‘남도생명밸리’ 조성 ▲국도13호선 주변의 산단, 혁신도시, R&D기반을 연계한 ‘Route-13 첨단산업밸리’ 조성 ▲혁신도시 문화관련 이전기관과 아시아문화전당, 전남의 풍부한 다양한 역사·문화자원을 연계해 광주·전남을 상징하는 역사와 문화의 강으로 조성 등을 제시했다.

또 이날 광주발전연구원 김재철 박사는 ‘영산강유역 문화관광벨트 조성 협력 방안’을, 한국건설기술연구원 이삼희 박사는 ‘영산강 보전과 지속가능한 활용 방안’ 등을 발제할 예정이다.

/윤현석기자 chadol@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위원장 지간길)는 지난 30일 오후 광주시 서구 라마다 호텔에서 위원회를 열고 문화중심도시 추진현황, 국립아시아 문화전당 운영방안 등 현안을 점검했다. /최현배기자 choi@kwangju.co.kr

문화전당 월요일에도 문 연다 매주 화요일 휴관...17~18일 한-남아시아 문화장관 회의

광주시민들이 공공 문화공간이 쉬는 매주 월요일에도 국립아시아 문화전당(문화전당)에서 문화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추진단(추진단)은 지난 30일 광주시 서구 라마다호텔에

서 열린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위원회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문화전당 운영계획을 보고 했다.

내년 9월 개관하는 문화전당이 월요일에 문을 열기로 한 것은 국립광주박물관, 광주시립미술관 등 공공 문화공간

이 월요일 휴관제를 채택, 문화공백이 생기기 때문이다. 문화전당의 공식 휴관일은 매주 화요일이다.

추진단은 이밖에 문화전당 개관에 맞춰 한-남아시아 문화장관 회의를 오는 17일~18일 광주시에서 개최한다. 행사

에는 인도·파키스탄·네팔·부탄·스리랑카·몰디브·방글라데시 등 8개국 문화장관이 참가한다. 이들은 문화유산 보존과 활용을 위한 협력, 공동창작 활성화 등 문화교류 공동선언문을 발표할 예정이다. /윤영기기자 penfoot@

8일 개기월식, 전국서 관측

6시 14분부터 시작...다음 관측일은 내년 4월

오는 8일 달이 지구의 그림자에 가려지는 개기월식 현상이 일어난다.

한국천문연구원에 따르면 오는 8일 부분월식부터 달이 가려져 완전히 사라지는 개기월식까지 전 과정을 우리나라에서 관측할 수 있다.

개기월식은 1년에 한두 차례 일어나는 천문현상으로 드문 일은 아니지만, 우리나라에서 개기월식을 관측할 수 있는 것은 2011년 12월 이후 처음으로, 다음에는 내년 4월에 볼 수 있다.

오후 5시57분 달이 뜬 뒤 오후 6시14분 달의 일부가 가려지는 부분월식을 시작으로 달이 지구 본그림자에 완전히 들어가는 개기월식은 오후 7시24분에 시작돼 한 시간 동안 지속된다.

이때는 평소와 달리 붉게 물든 어두운 등근 달을 볼 수 있다.

이후 다시 달의 밝은 부분이 보이게 시작해 오후 9시34분에 부분월식이 종료되며 오후 10시35분이면 월식 소가 끝난다. /연합뉴스



2011년 개기월식 모습

다. 천문연은 한국아마추어천문학회, 전국천문우주과학협회, 서울시 등과 함께 이날 서울 서강대학교 다산관, 대전 대전시민천문대 등 전국에서 개기월식 관측회를 진행한다. 이와 함께 홈페이지, 트위터, 페이스북을 통해 월식현상의 전 과정을 시간대별로 업데이트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한전, 섬지역 에너지 자립기반 돕는다

하이브리드 전력설비 기술 개발...공공기관·기업 12곳과 협약

오는 11월 광주·전남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하는 한국전력이 지역 중소기업과 도서 지역에 적용 가능한 하이브리드 전력설비 기술 개발에 나선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0일 광주·전

남과 경남, 강원, 경북, 충북 등 5개 혁신도시로 이전하는 공공기관, 지역 기업 등 12곳과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연계 지역 산업육성사업'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공공기관들은 지역

산업을 일으키고 지방 기업들의 사업을 지원하기 위한 24개 과제를 수행하기로 했다. 국비 60억원과 지방재정 14억원이 과제 수행에 지원된다.

한국전력은 먼저 도서지역 하이브리드형(풍력·태양광) 마이크로그리드 시스템 기술개발과제를 수행한다. 또 마이크로

그리드형 스마트 BESS(에너지 저장시스템) 기술개발도 추진한다. 도서 지역에 각종 신재생에너지 발전 시설을 설치해 에너지 자립 기반을 조성하는 사업을 지역 기업들과 함께 추진하는 것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이번 사업에는 공공기관들과 함께 기업과 연구소, 대학 등 43개 민간 기관이 참여한다”며 “2016년까지 사업 매출 886억원, 일자리 1446명 창출 등의 성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임동기기자 exian@kwangju.co.kr

예쁜사람은 많다 돈 많은 사람도 많다 정신이 맑고 마음이 예쁜사람도 많았으면 좋겠다. 나눔과 배려가 세상을 바꾸듯이 신협이 예금과 대출이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 수 있도록 앞장서겠습니다.

- 비과세 예금 3,000만원 (1인당 예금보장 5,000만원)
- 대출최고한도 28억원 (최저금리 3.8%)

광주원광신협
대표전화 1599-4474
공동본점/금호지점/중앙지점

2013년도 경영평가 최우수금고 선정

2013년 서양새마을금고 사랑 나눔
날짜: 2013년 12월 26일 장소: 남구문예회관

품도러벌 장학금 500가마 2,400만원 소화기 100대
목거노인소화기 100대

이사장 안두경 2013년 금고자산 → 2,607억원
당기순이익 → 15억3천만원
출자배당금 5% 배당금 → 5.0% (현재 장/매출액 1년 3%)

서양새마을금고
본점 671-5000 양림지점 652-9203 주유사점 720-2880 월산지점 364-7557

제5회 자동이체 행운이벤트

5,000만원 경품 1,479 분께 드리는 특급 이벤트!!

경품추첨일 2014년 10월 26일(일) 오후 2시 빛고을시민문화관

신청기간 2014년 10월 24일까지
응모대상 행사기간내 자동이체 3건 이상 신청, 기존유지고객
응모권교부조건 자동이체 3건당 1매 교부

경품안내
1등 50인치 벽걸이 TV 3명 5등 자전거 12명
2등 드럼세탁기 3명 6등 생활용품세트(大) 90명
3등 세습기 9명 7등 생활용품세트(中) 150명
4등 쿠키입력반출 12명 8등 이차상 1200명

* 6등까지는 참석자 본인에 한하여 경품지급합니다. * 중복당첨시 상위 상품으로만 지급합니다.
* 경품행사는 유모한 회원에 한하여 추첨합니다.

서양새마을금고 서동본점 671-5000 (KBC광주방송국 앞) 양림지점 652-9203 (기동병원 아래) 월산지점 364-7557 (대성초교사거리)